

신작 무용 '빨간 부처' 15·16일 LG아트센터

'왜 고뇌할까' 인간 탐구

전각-점토 등 소품 활용 동양정신 무대속으로

독특하고 세련된 안무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무용가 홍승엽씨(댄스시어터 온 대표)가 신작 '빨간 부처'로 관객을 찾아간다. 15일-16일 서울 강남 LG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부처는 무엇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현실과의 괴리, 그 괴리를 가늠할 수 없는 반항(反響)에서 고뇌하는 인간을, 선명한 색감과 연극적 몸짓으로 풀어내간다.

댄스시어터의 간판 무용수인 이광석, 김선아, 이진우, 김홍희, 남도욱씨 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제1장 '꽃과 진흙과 방석'에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과 진리 그 자체인 자연을 대비시키는 내용이 명상적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며, 제2장 '홍과 부처'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진 빨간 부처를 표현한다. 마지막 제3장에서는 고이는 것과 흙

아지는 것의 묘리를 '판다라와 비람'을 주제로 삼아 선보인다.

"작품 속에서 빨간 부처는 고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을 선택한 것은 도발적이고 정열적인 이미지가 바로 세속의 속성을 대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현실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을 빨간 부처로 설정한 거죠. 흙을 통해서 자신의 조각을 하나 하나씩 맞추어 가는 과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유의 정서, 즉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 보겠다는 게 홍씨의 안무 의도다. 흙의 주제는 자못 무거운 듯 느껴지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해학적인 발상과 위트 섞인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는 재미를 안겨줄 계획이다. 이는

홍씨의 안무가 대중적 인기를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칫 관념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자 무용수들에게 개별적인 동작을 부여하고, 속세라는 상징으로 설정된 점토 및 문양 디자인 등의 소품에도 독자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14곡의 무용수가 진흙으로 80여개의 부처상을 빚어내며 흙을 주고, 예제 만든 부처상을 다시 발로 밟으며, '반야심경'이 초서로 쓰여지는 영상이 투사되면 희의 리듬을 따라 춤 동작을 구사하기도 하는 등 색채고 실험적인 표현들이 시도된다.

이를 위해 전각 문양디자인 최규일, 점토 디자인 신이철, 영상 디자인 서양범씨 등이 참여해 동양적인 표현 기법을 통한 우리 현대 춤의 영역확장을 꾀한다. 022006-0114 이은자 기자 ejee@buddhista.com



○무용가 홍승엽 씨는 이번 작품 '빨간 부처'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선명한 색감과 연극적 몸짓으로 펼쳐 보인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모든 작가들이 가장 고심해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일까?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취급되는 문학적 주제는 '사랑'일 것이다. 그러나 통속문학 작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해 글을 쓰는 작가라면 그가 평생 매달려 풀려고 애쓰는 인생의 근본문제 중의 하나는 '시간'이라는 테마인 것 같다. 실제로 대부분의 세계적인 문호(文豪)들은 하나 같이 시간이란 주제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시간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누구나 생이라는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면 결국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이라는 블랙홀과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생사의 문제는 논리를 뛰어넘어 체험과 깨달음의 세계에 속한다. 일체 중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간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인류의 큰 숙제로 남을 것이다. 수많은 사색인들이 파고

또 파왔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인식의 샘인 시간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존의 자각과 자아의 성찰로 이끄는 문이 되고 있다.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면, 모든 문명과 사회 그리고 나아가 종교의 성격까지도 명확히 드러난다. 불교는 인생을 윤회를 거듭하는 원형적(圓形的) 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원으로부터의 이탈이 곧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라고 보았다. 중동의 사막에서 유목민들에 의해 탄생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시간을 천지창조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의 유한한 직선으로 보았다. 최신 과학에 있어서도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에서 밝힌 것처럼 시간은 우주 생성의 비밀을 해결할 열쇠로 등장하고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하이데거와 화이트헤드 등도 모두 그들의 사유를 시간의 문제에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사구문명은 기독교의 직선적 시간관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 유한성을 비판하였다. 비판적 이상의 조명 앞에서 시간의 문을 닫을 '최후의 심판'이 증발되어 버리자, 시간은 무한한 직선의 형태를 띠는 '역사적 시간'이 되었다. 역사의식이야말로 모든 현대인의 마음에 찍힌 낙인이다. 시간의 직선적 역사성에 대한 맹신은 현대인을 '진보', '선진', '전위', '혁신'의 바람 앞에 내몰고 있다. 그 바람을 일으키는 엔진은 '과학기술'이다. 바야흐로 현기증 나는 '속도'의 시대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은 인간과 사회와 우주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모든 정신적 체험은 '시간체함'으로 환원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는 곧 '인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좀 거칠게 말한다면 모든 문학과 종교경전의 핵심도 시간에 대한 해설로 축약되고, 깨달음이나 구원도 결국 인간의 '시간체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속)

■문학평론가

음악-춤-의상-조명 '일체화'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한국적 음악을 추구해오며, 중견연주단체로 성장하고 있는 한모음 실내악단이 창작곡과 춤, 의상, 설치미술, 조명으로 일체화된 빛의 한주 빛소리 빛사위 빛맵시'를 11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원예악당에서 선보인다.

**빛소리
빛사위
빛맵시**

한모음 실내악단
여섯번째 연주회



이번 공연은 96년 창단 이후 12곡의 창작곡을 발표하며 국악 실내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온 한모음 실내악단이 마련한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로, 음악과 무용, 패션 등 저마다의 분야에서 불교와의 접점을 시도해 오고 있는 이들이 뜻을 모아 이룬 실험적 무대다.

음악 작곡은 윤소희교수(동국대 국악과)가 맡았으며, 한모음실내악단의 윤문숙, 장은선, 송나나씨가 윤소희의 창작곡을 해금, 거문고, 가야금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설치미술 및 의상디자인은 불교적 소재들을 패션에 옮기는 작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이기향교수(한성대 의류학과)가 무용은 박현순씨(대구무용단 대표)가, 조명은 김창기씨(용인대 강사)가 맡았

다. 총 5개의 곡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다습생래(多住生來)의 수행을 통해 보통 사람도 부처와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작품 전체의 주제.

첫곡 '시방세계 부처님께'는 소멸되는 과거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가는 윤회와도 같은 우리나라 전통가곡을 새로운 선율과 장단에 실었다. 거듭되는 윤회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을 만나 진리를 향해 가고자 하는 열원이 담겨 있다. 두 번째 곡인 '심우도' 1, 2는 선(禪)의 심우도를 모티브로 구도의 과정을 상징화했으며, 세 번째 곡 '아득한 옛날부터'는 석가모니의 전생이 이야기 중에서 지극한 구도자였던 선해청년의 이야기를 해금독주곡으로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곡인 '회향'은 무한한 법연(法苑)의 세계를 모든 중생들과 함께 누리자는 뜻을 살리기 위해 밝고 경쾌한 대중적 악풍으로 전개했다. 02575-0432 이은자 기자



◇김성환 씨의 거지도 자가용으로 영입.

풍자와 상상력의 세계

'아시아 만화전' 세종갤러리

만화로 보는 세상이야기-아시아 만화전'이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갤러리에서 열린다.

경제 성장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990년대의 아시아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는 아시아 9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을 대표하는 유명 만화가들의 만화 90여점이 선보인다.

출품된 작품을 살펴보면 김성환의 '거지도 자가용으로 영입'은 한국사회에 만연된 자가용 소유를 풍자한 내용이며, 모리타 겐지(일본)의 '무(無)의 경지(境地)'는 문명의 이기가 공해로 바뀌는 현실 사회의 단면을 고집했다. 미야오 인방(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주임)만화가의 '예인'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 TV가 보급되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문제점을 풍자한다. 이밖에도 기발한 상상력과 특유의 필치로 아시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익살과 유머로 그려 보인다. 022212-2820 이은자 기자

문화 단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관광부의 6월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는 모두 55개 문화예술단체가 전국의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일-21일 충남 서산 해미읍성, 경남 남해문화회관 등지에서 '찾아가는 박물관'을 열어 신라시대 토우 등 백제 유물과 조선시대 풍물화 패널을 전시한다. 아이치예술팀은 16-30일 용인정신병원 화성온해원에서 성악곡을 들려주는 '음악치료를 위한 음악회'를 연다. 또 국립무용단이 20일과 22일 거창과 진주문화회관에서 '우리 춤의 맥을 찾아서'를, 국립창극단이 26일 거창군에서 '맹진사댁 경사'를 무대에 올린다.

풍경소리 홈페이지 단장

좋은 빛 풍경소리가 홈페이지를 단장했다. www.budson.or.kr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정보센터의 지원으로 새로 선보인 홈페이지에는 <천불동요 창작곡> 1집-11집과 <불국기념음반> 등 2백여 곡의 노래와 반주 음악을 mp3 파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풍경소리는 홈페이지 개설과 더불어 최근 발표한 <법회의식곡집>을 일반 음반매장에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김해자씨 누비 특강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기능보유자 김해자씨가 경주 탑동 누비공방에서 누비 특강을 연다.

전통누비를 위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특강은 오는 16일-17일 첫 강좌로 얘기조끼 만들기를 한다. 이 모임은 매달 셋째 주말에 손쉬운 소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우리 전통누비의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054775-2631 이은자 기자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목수건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